

참을 수 없는 일본미(日本美)의 무거움

일본비평 13호 “문화 이데올로기로서의 일본미”를 기획하고 나서

강태웅

1. 우쓰쿠시이와 일본미의 경중(輕重)

일본어로 아름답다를 가리키는 ‘우쓰쿠시이’(うつくしい)는 고대 일본어에서 현재와 다른 의미로 쓰였다. 『만요슈』(万葉集)에서는 부부, 부모, 처자식, 연인에 대한 매우 친밀한 감정을 표현하는 말이었다. 헤이안(平安) 시대에도 우쓰쿠시이는 ‘인(仁), 자(慈), 혜(惠), 은(恩), 충(寵), 린(隣)’ 등의 뜻으로 쓰여, 결코 미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었다. 헤이안 중기의 여류문학에서 우쓰쿠시이는 작은 것에 대한 애정 또는 가련한 감정으로 뜻이 바뀌었고, 이후 무로마치(室町) 시대에 이르러 아름답다는 의미로 쓰이기 시작한다. 그렇다면 『만요슈』가 성립한 8세기 나라(奈良) 시대에 아름답다는 의미로 어떠한 단어가 쓰였을까.

현재는 ‘상세함’을 나타내는 ‘구와시’(くわし)가 이 시대에는 ‘미려(美麗)하다’라는 의미였다. 헤이안 시대에 들어서면 ‘구와시’는 자세하다는 의미로 바뀌고, ‘기요라’(きよら) 또는 ‘기요게’(きよげ)라는 단어가 아름답다는 의미로 쓰인다. 기요라, 기요게는 ‘기요시’(きよし)에서 온 말로, 나라 시대에는 달이나 거울이 흐릿하지 않은 상태, 즉 더러움·혼탁함이 없는 상태를 가리켰다. 기요시와 더불어 ‘사야케시’(さやけし)도 많이 쓰였다. 기요시가 투명하거나 아무것도 없음을 의미했다면, 사야케시는 뚜렷함을 나타냈다. 헤이

안 시대에 와서 기요시에서 기요라와 기요게라는 형태가 생겨나고, 기요라는 최고의 아름다움, 기요게는 그에 다음가는 아름다움을 나타내었다. 오늘날 우쓰쿠시이와 더불어 아름답다는 말로 쓰이는 ‘기레이’(綺麗)의 경우, 무로마치 시대에 더러움 없고 청결하다는 의미로 쓰였다. 최근에는 기레이가 우쓰쿠시이를 누르고 아름답다는 말로 가장 많이 쓰인다. 이상과 같이 『일본어의 연륜』(日本語の年輪)이라는 책을 통하여 일본어의 ‘아름답다’는 단어의 변천을 살핀 오노 스스무(大野晋)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린다.

일본인의 미의식은 선한 것, 풍부한 것이라기보다는, 청결하고 세세함에 동조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중국에서 미(美)가 ‘羊’과 ‘大’한 것, 려(麗)가 커다란 뿔을 두 개 지닌 사슴(鹿)의 의미에서 왔음을 생각할 때, 일본어의 커다란 특색이라 할 수 있다.”¹

중국어에서의 아름다움을 가리키는 ‘미려’(美麗)라는 한자가 동물적이고 거대함, 그리고 음식과 제사를 연상시킨다면, 이와 달리 일본어는 작고 세세하고 청결함을 의미했다는 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일본어의 특색은 한국어와 공통점이 있다. 일본어 우쓰쿠시이가 원래 갖고 있던 ‘작은 것에 대한 애정 또는 가련한 감정’이라는 의미는 한국어의 ‘예쁘다’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훈민정음』의 ‘어여뻐 여기서’에서 나타나듯이 ‘예쁘다’가 우쓰쿠시이와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²

위에서 소개한 전통시대의 아름다움을 가리키는 일본어는 사물을 형용하는 기능이었고, 관념적인 미 개념을 통합하여 가리키는 단어는 아니었다. 제아미(世阿弥)가 사용한 ‘하나’(花)·‘유젠’(幽玄), 리큐(利休)의 ‘와비’(わび), 바쇼(芭蕉)의 ‘후가’(風雅)·‘사비’(さび), 모토오리 노리나가(本居宣長)의 ‘모노노아와레’(もののあはれ) 등이 궁극의 경지를 가리키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

1 大野晋, 『日本語の年輪』, 新潮文庫, 2009, 29쪽. 우쓰쿠시이와 관련된 부분은 20~28쪽에서 참조하였음.

2 신기수, 「어의에서 본 미의식의 특성」, 『일본학보』, 제5집, 1977, 13쪽.

여, 어느 정도 서구의 미 개념의 추상성을 내포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추상적인 미 개념의 정립은 메이지 시대에 들어와 번역어로서의 미의 등장을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³

그렇다면 근대에 들어와 아름다움과 일본이 만나 ‘일본미’(日本美)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을 때,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까. 일본어에 담겨 있던 ‘작은 것에 대한 애정 또는 가련한 감정’은 사라지고, 한국어의 ‘예쁘다’와의 공통 점도 은폐되어 버려, 참을 수 없을 만큼 무거운 개념이 되어버린다. 『일본비평』 13호 “문화 이데올로기로서의 일본미”는 바로 아름다움이라는 단어가 무게감을 더한 시점에서 출발한다.

『일본비평』의 일본미에 대한 탐구가 한일수교 50주년이 되는 2015년, 그것도 광복절이 들어 있는 8월에 발간하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주제이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편집회의에서 나왔다. 보통 ‘미’에 대한 연구라 하면, ‘가볍고’ ‘피상적’이며, 미술이나 미학과 같은 특정 학문에 한정된 것이라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미는 인간의 오감을 지배하고 있고, 행동양식은 물론이고 소비 패턴을 좌우한다. 일본미와 같이 아름다움이 국가와 민족에 결부되었을 때에는 애국심과 민족주의의 근원을 형성한다. 또한 일본인이 생각하는 ‘일본’이란 무엇인가를 묻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일본미는 전승해야 할 일본의 전통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아름다운 나라로』(美しい国へ)라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저서 명처럼 일본의 미래를 겨냥하는 척도가 된다. 이웃국가에 대한 배려 없이 일본이 나아갈 길만을 외치며 일본회귀를 강조하는 현 상황에서, 일본미에 대한 분석은 그 핵심을 찌르는 연구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출발하였기에, 『일본비평』 13호는 일본미에 대한 개괄적 소개를 지양하였다. 그보다는 일본이라는 시공간 속에 형성되고 상상되어온 ‘일본적’ 미에 대한 탐구를 지향하였다. ‘일본적’이라 하여 따옴표에 넣어 판단을 유보한 이유는 동아시아 문화에 바탕을 두면서도

3 柳父章, 『翻譯語成立事情』, 岩波新書, 1982, 67~86쪽.

‘일본적’이라고 표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각을 살리기 위하여 다양한 학문을 하는 필진이 구성되었다. 정치사상부터 시작하여, 역사학, 미술사학, 건축학, 영문학, 표상문화론 등과 같은 서로 다른 전공의 연구자들이 모여 다양한 방법으로 일본미 분석을 시도하였다. 아쉬운 점은 일본미를 동아시아 속에 위치시킴으로써, 즉 중국과 한국의 비교를 통하여 동아시아 공통의 유산을 예리하게 도려내어 일본적이란 과연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작업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새로운 기획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일본비평』의 일본미에 대한 탐구가 한국의 일본학 연구에 있어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일본미와 한국미, 그리고 아시아의 미를 비교·연구하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

2. 일본미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

『일본비평』 13호에 특집으로 기획된 논문들을 살펴보자. 장인성의 「보수의 미학: ‘포스트전후’ 일본 보수주의의 정치미학」은 일본미의 무거움을 보수 정치가들의 정치사상 속에서 찾아내고 있다. 이 글이 포스트전후, 즉 전후 체제를 부정하는 보수주의 정치미학의 대표자로 들고 있는 것은 니시베 스스무(西部邁)와 사에키 게이시(佐伯啓思)다. 장인성은 그 둘의 담론을 상식, 질서, 국가표상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분류하고, 그들이 ‘일본 보수주의의 원점’으로 상징하는 후쿠다 쓰네아리(福田恆存)와 비교하여, 포스트전후 보수주의자들의 독자적인 미의식 또는 미적 감각을 규명해낸다.

정치사상에 반영된 보수의 미학을 살펴본 다음으로 준비된 글은 박삼현의 「메이지 일본의 ‘풍경’ 발견: 『내국여행 일본명소도회』(1888~1890)를 중심으로」다. 이 글은 인간이 미를 느끼는 가장 가까운 요소 중 하나인 풍경을 문제시한다. 박삼현은 풍경이란 감상하는 인간의 시선에 의해 ‘발견’되는 것임을 환기하고, ‘일본’이라는 풍경이 어떻게 발견되었는지를 찾아본

다. 이 연구는 무엇보다도 기존에 주로 언급되어오던 시가 시게타카(志賀重昂)의 『일본풍경론』(日本風景論)을 대신하여, 그보다 6년 빨리 출판된 여행안내서 『내국여행 일본명소도회』(内国旅行 日本名所図会)라는 새로운 사료를 제시했음에 의의가 크다. 그리고 풍경이라는 보편적인 미적 감상 대상이 ‘일본풍경’이라는 담론에 편입됨으로써, 자연풍경의 서열화가 이루어짐을 밝혀냈다. 즉 천황과의 관련성 여부에 따라 풍경이 차별화되는 것이다.

조정민의 「일본적 미의 지층과 가와바타 야스나리」는 이번 『일본비평』의 특집 주제를 가장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연구다. 가와바타 야스나리(川端康成)의 노벨문학상 수상 기념강연 제목으로 유명한 〈아름다운 일본의 나〉(美しい日本の私)는 미와 일본을 연결시키는 구호이자, 이후 일본인의 공동체적 감성을 자극하는 대표적 어구가 되었다. 이 글은 가와바타가 강조한 ‘아름다운 일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탐구다. 패전이라는 시점에서 가와바타는 일본적 미가 내재되었다고 여겨지는 ‘고래(古來)의 일본’을 호출하고, 고전문학을 탐닉한다. 하지만 이러한 일본회귀는 그의 문학에서 보이는 서구적 경향과는 상반된다. 일본회귀와 서구화를 가와바타 개인의 문학에 한정시키지 않고, 이 글은 일본 근현대사의 큰 물줄기에서 그 반복성을 찾아낸다.

조현정의 「일본전통논쟁과 타자, 조몬적인 것」은 1950년대 ‘일본전통논쟁’을 주목한다. 논쟁의 대표적인 주자로 등장하는 이는 미술가 오카모토 다로(岡本太郎)와 건축가 단게 겐조(丹下健三)다. 오카모토 다로는 전사시대 조몬(縄文)문화에서 일본의 전통을 구하고, 단게 겐조는 야요이(弥生)문화에서 그것을 찾는다. 오카모토는 조몬문화의 특색을 일본에 한정시키기보다는, 원시적 보편성과 창조성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본다. 이러한 오카모토의 조몬론에 반응한 것은 건축계였다. 조몬론은 수혈주거-민가로 이어지는 민중적 계보로 전개되었고, 이에 반하여 야요이적이라 함은 고상식-엘리트 주거라는 귀족적 계보로 이해되었다. 야요이적이라 할 수 있는 단게 겐조는 오카모토와는 달리 일본적이면서도 근대적이고, 전통적이면서도 동시대일 수 있는 선택을 해나갔다. 조현정이 제시하는 조몬적, 야요이적이라는 구분은

이후의 일본 예술가들을 판단하는 데 쓰일 수 있는 훌륭한 잣대를 독자들에게 제공한다.

특집기획으로서 마지막에 해당하는 논문인 최재혁의 「현대 ‘일본화’에 나타난 전통미의 재생과 동서의 융합: 마쓰이 후유코의 작업을 중심으로」는 현재에 있어 일본화(日本画)란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는지에 대하여 정공법으로 질문한다. 이 글은 죽은 이와 유령을 엮기적이라 생각될 정도로 사실적으로 그려내면서도, 묘한 아름다움을 느끼게 만드는 마쓰이 후유코(松井冬子)라는 여성화가에 초점을 맞춘다. 그녀의 그림은 ‘새로운 일본화’의 영역을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글은 단순히 일본화가 ‘만들어진 전통’이라는 논의에서 멈추지 않는다. 일본화가 그림도구에 의해서 정의될 것인지, 아니면 ‘전통적인 수법과 고전적인 화면’의 취득에 의해서 규정될 것인지를 고민하고, 일본화의 변용이라는 흐름과 마쓰이 후유코의 일본화로 의 회귀라는 상충되는 측면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지 고찰하는 등, 최재혁은 일본화를 둘러싼 모든 긴장관계를 마치 오장육부를 드러내는 마쓰이 후유코의 그림처럼 끄집어냄으로써 ‘새로운 일본화’라는 담론을 해체해나간다.

이상의 글들이 일본을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었다면, 이택광의 특별기고 「자포니즘, 그 이후: 서구와 비서구의 변증법」은 시각을 서구로 이동한다. 19세기 말 유럽을 강타한 자포니즘(Japonism)은 좁게는 인상과 화가들의 화풍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넓게는 근대 이후의 서구예술을 이야기함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요소다. 자포니즘의 위력은 일본인에게 자신들의 미적 감각에 대한 ‘우월한’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이러한 인식은 최근의 만화와 애니메이션을 주력으로 하는 ‘쿨재팬’(Cool Japan) 열기에서도 발견된다. 이에 대하여 이택광은 “자포니즘은 일본의 것이라기보다, 그 일본을 바라보는 서양의 시선을 통해 만들어진 ‘일본적인 것’”이라고 지적하며, 서양인이 서양의 전통을 비판하기 위한 도구였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서양 전통의 비판은 회화에서 원근법적 원리의 거부로 나타났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원근법적 원리가 늦게 도입되어 ‘근대 미술’이라는 형태로

전개되어나간다. 이처럼 자포니즘을 둘러싼 서구와 일본의 시각 교환을 이 글은 흥미진진하게 보여준다.

강태웅의 「일본인은 다르게 움직이는가: 우치다 다쓰루(内田樹)의 『일본의 신체』(日本の身体)를 중심으로」는 서평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특집기획에 공명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 여기서의 일본미는 신체로 확장된다. 『일본의 신체』는 저자인 우치다 다쓰루가 일본인 고유의 신체관에 기반을 둔 12명의 ‘신체기법의 달인’을 만나는 형식으로 서술된다. 12명의 달인들은 분라쿠(文楽), 가부키(歌舞伎), 노(能)와 같은 일본 전통공연부터, 사미센(三味線), 샤쿠하치(尺八)와 같은 전통악기 연주자, 합기도(合氣道), 스모(相撲) 등 무예와 스포츠, 거기에 만화가와 고풍사냥꾼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면면들이 등장한다. 달인들의 입을 통해서 일본적인 신체기법이 발견되면서, 그것이 동아시아 문화와 어떠한 관련성을 맺고 있는지 논의를 확장한다. 하지만 저자인 우치다 다쓰루는 일본의 신체기법에 담겨 있는 보편성이나 주변과의 연관성을 단절하며, 일본 특수론으로 이끌어가고려고 한다. 강태웅은 주변 문화와의 비교를 거부하고 일본으로 수렴하려는 우치다 다쓰루의 접근방식으로는 결코 ‘일본적’인 것이 규명될 수 없음을 지적한다.

김용철의 「중일·태평양전쟁기 일본의 오카쿠라 덴신(岡倉天心) 재조명」은 연구논단으로 투고된 논문이지만, 특집으로 기획되었다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다. 메이지 정부가 최초로 세운 미술교육기관 공부미술학교(工部美術學校)에서는 서양미술만을 가르쳤다. 이에 대한 반발로 공부미술학교가 폐교된 후 설립된 도쿄미술학교(현재 도쿄예술대학)에서는 서양화과가 설치되지 않고 일본화과만이 설치되었다. 최재혁의 논문에서 나왔듯이 ‘일본화’가 발견된 것이다. 이 시기에 도쿄미술학교의 설립과 이후 일본미술원의 개원을 주도한 오카쿠라 덴신은 미술행정가이자 미술평론가로 근대 일본미술의 정립에 빼놓을 수 없는 존재다. 그의 사상은 일본에 머물지 않고 아시아론으로 확장되어, 이는 미국과 영국에서 발행된 『동양의 이상』(*The Ideals of the East*, 1903), 『동양의 각성』(*The Awakening*, 1904), 『차의 책』(*The Book of Tea*, 1906) 등에 발현되었다. 김용철은 이러한 1900년대 초반 발표

된 오카쿠라 덴신의 사상이 중일·태평양전쟁기라는 시대적 요구가 투영되면서 변질되어 버렸음을 밝혀낸다. 그리고 당시 ‘대동아공영권’을 미리 깨친 ‘선각자’로서의 오카쿠라 덴신에 대한 개인적인 숭배가 일어났고, 이것이 일본미술계에 영향을 미쳐 오카쿠라 덴신 조각상들이 다수 출현함도 밝혀내고 있다. 이 논문은 일본미가 갖고 있는 ‘위험성’을 중일·태평양전쟁기 오카쿠라 덴신의 재조명을 통해서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그밖에도 연구논단에는 최정훈의 「1880년대 후반 메이지 일본의 전쟁 담론 공간: 야마모토 주스케(山本忠輔)의 『일본군비론』(日本軍備論)을 중심으로」가 실렸다. 이 글은 청일전쟁 이전 민간의 전쟁인식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특과원으로 조선에 파견되었던 아사히신문 기자 야마모토 주스케의 저작을 통해서 알아본다. 청일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이 글에서 드러나는 일본인의 주변국에 대한 인식과 전쟁에 대한 이해는 마치 지금의 일본을 보는 듯하다. 작금의 아베 총리 주도에 의한 자위대 역할 확대 및 안보법 개정 움직임을 역사적으로 반추해볼 수 있는 시의적절한 논문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워크숍에서 발표를 해주시고 원고까지 다듬어 보내주신 모든 저자들, 워크숍에서 토론을 맡아주신 윤비, 남상욱, 윤상인, 김용철, 우동성, 목수현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힘써주신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실무진 및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여러분께도 필진을 대신하여 고마움을 전한다.